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7월 호)



CST, 전략적 비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과도기적 리더십 구조 발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2025년 5월 27일)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행정 주요 리더십팀 교체, 기관 구조 조정,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학교를 이끌어갈 전략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과도기적 리더십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프레임워크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CST의 전략 계획, 특히 협력적 리더십, 재정 관리, 그리고 사명 중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와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주요 리더십의 은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과도기적 모델은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 탁월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담대하고 유망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CST의 임원진에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더하는 두 명의 노련한 리더인 제프리 관 목사와 그랜트 하기야 감독이 공동 회장직을 맡는 것입니다.

- Jeffrey Kuan 목사는 CST 이사회, 교수진, 종교 간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교육 기관 인가, 교외 파트너십, 전략적 계획을 포함한 기관 운영에 집중할 것입니다.
- Grant Hagiya 감독은 교수직 외에도 교회 관계, 기부자 관계, 신학 교육에 대한 노력을 지휘할 것입니다.

CST 이사회 회장 Patricia Farris 목사는 “이번 과도기 리더십 팀은 연속성과 혁신을 모두 상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패리스 회장은 “이를 통해 우리는 가치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사명에 온전히 부합하는 과감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도기적 구조는 CST 리더십의 연속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에 자원을 재분배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그 외 주요 리더십 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ve Horswill-Johnston -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총장
- Andy Dreitcer 박사 - 학과 담당 수석 부총장 겸 학장
- K. Samuel Lee 박사 - 국제 관계 담당 수석 부총장 겸 실천신학 교수
- B. Yuki Schwartz - 학과 및 학생처 담당 부총장(2026년 1월 취임)

이러한 역할은 CST의 학문적 비전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국제 및 교파 간 관계를 심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전략 계획의 핵심 축입니다. CST의 이사회는 이 과도기적 구조가 일시적이며 2027년 6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CST가 차기 총장선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공동 총장인 Jeffrey Kuan 목사는 “지금은 약속과 계획의 순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욱 협력적이고 사명에 부합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CST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종교 및 신학 대학원입니다. 종교 간 교육의 선두주자인 CST는 연민, 정의, 그리고 소속감을 지향하며, 영적으로 뿌리 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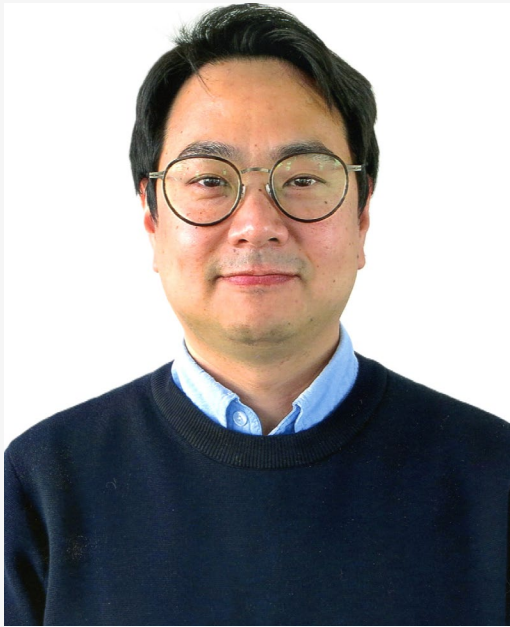
송민환 박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 실천학 조교수로 임용

본교 출신 송민환 박사가 2025년 7월 1일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실천학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Ministry)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송 박사는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실습 과목 지도, 부학장을 도와 학위 과정 평가 지원 및 학생 학업상담, 공동체 행사 기획 등 교육, 행정, 학생 지원 전반에 걸쳐 일하게 된다.

송 박사는 2008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Th.B.), 2010년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를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오하이오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2013)를, 에모리대학교 캔들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 2015)를, 그리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전공으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영적 돌봄과 상담(Spiritual Care and Counseling)이며, 특히 영성심리치료(Spiritually Integrative Psychotherapy)에 대한 심화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진자 위에 선 목회자들: 조현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는 한국 교회 목회 현장에서의 반정신차별과 변증법적 목회신학 성찰(Pastors on Pendulums: An Anti-Sanist and Dialectical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on Caring for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in the Korean Church)”은 조현병을 경험하는 성도를 돌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딜레마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정의롭고 창의적인 목회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다.

송 박사는 학위 과정 중 에모리 존스크릭 병원(Emory Johns Creek Hospital)에서 목회임상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을 통해 채플린 훈련을 받았으며, 클라인벨연구소(The Clinebell Institute)에서는 목회 상담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과거 다년간 아동부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현재는 윌셔 연합감리교회(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실천 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의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그의 학문적 관심과 전문성, 그리고 실천 경험이 정의, 연민, 소속감을 추구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육과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신학교에서의 학업과 학생 근로자로서의 경험은, CST의 행정 및 학생 지원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송민환 교수, Ph.D. '24〉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2025년 7월 1일부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CST)에서 목회 실천학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Ministry)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송민환입니다. 사랑하는 모교로 다시 돌아와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동문께 그러하듯, CST는 제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온 제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CST에서 경험한 다양성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과 신앙의 풍성함은 제 인격과 신앙, 그리고 학문적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천적이면서도 정의, 연민, 소속감을 중시하는 CST의 학문 공동체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마주해 온 현실의 고충과 한계들과 치열하게 씨름하도록 이끌었으며, 동시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실천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클라인벨 상담센터(The Clinebell Institute)에서의 6년간의 목회상담가 훈련은, 정신건강과 신앙이라는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현장 경험과 통합하여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여정에서 저는 목회 돌봄과 상담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회 현장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로부터 겪는 차별과 냉대, 소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적절한 자원과 구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회자나 일부 교인,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돌봄의 책임은 개별 교회나 목회자 개인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교회 안팎의 다양한 공동체와 구성원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협력해 이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품고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ST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게 큰 도전이자 가슴 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교회와 사회 속에 드러내고자 진심을 다하는 CST의 학풍 안에서,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게 될 목회후보생들이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실천적으로 충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행정,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지원에 있어서도 CST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하여 모든 학생이 그 혜택을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CST가 급변하는 21세기 신학교육을 선도하며, 더 넓고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이들을 길러내는 기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동문 선배님들과 CST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경식 수석 부총장님 그리고 김남중 부학장님과 협력하여 CST가 그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 목회학 석사(M.Div.) 입학 안내

공휴, 정의, 소속감을 추구하는 신학교육 –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위한 여정,
CST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세요.



장학금 지원

- 합격 시 장학금 보장
-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목회 사역지 지원

- 목회 사역지와 연결시켜 줌
- UMC(미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 과정 지원 및 상담



유학 생활 정보 제공



지원 마감일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봄학기 우선 마감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봄학기 최종 마감
- 2026년 6월 1일 – 2026년 가을학기 최종 마감

지원 요건

항목	내용
지원서, 이력서/CV	온라인 작성
자기소개서	약 1,000단어
영문 성적표	학부 및 대학원 (해당 시)
영문 추천서	학문/전문 2부, 목회/일반 1부
입학지원비	\$50
영어 능력	TOEFL/ IELTS/ Duolingo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공휴(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CST는 성서 해석과 예술적 창조, 자기 성찰과 치유, 해방적 실천과 전통의 통합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 생태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실천합니다. CST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다양성과 겸손을 품고 전 세계 기관들과 연대하여 생명과 정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 admission@cst.edu
✉ 한국어 문의: kef@cst.edu

🌐 www.cst.edu

🌐 입학 지원 마감일 안내:
<https://cst.edu/admissions/deadlines-requirements/>

치유와 변화를 향한 여정:
2025년 여름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집중 수업 안내

2025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CST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여름 집중 수업이 Zoom을 통한 원격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업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승인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Zoom 집중 과정으로, 목회 현장에서 갈등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로 마련하였다. 올해 여름 집중 수업은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사진: 오현선 교수〉

7월 7-11일

IDM 438: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

- 강의: 오현선 교수 (CST 동문, 기독교 교육과 다 문화 분야의 뛰어난 실천신학자)
- 내용: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 변화 속에서 기독교 교육과 목회의 역할을 성찰하며, 인지행동 이론과 이민자 상황 분석, 참여적 학습을 통한 변화의 교육목회를 실습



〈사진: 김수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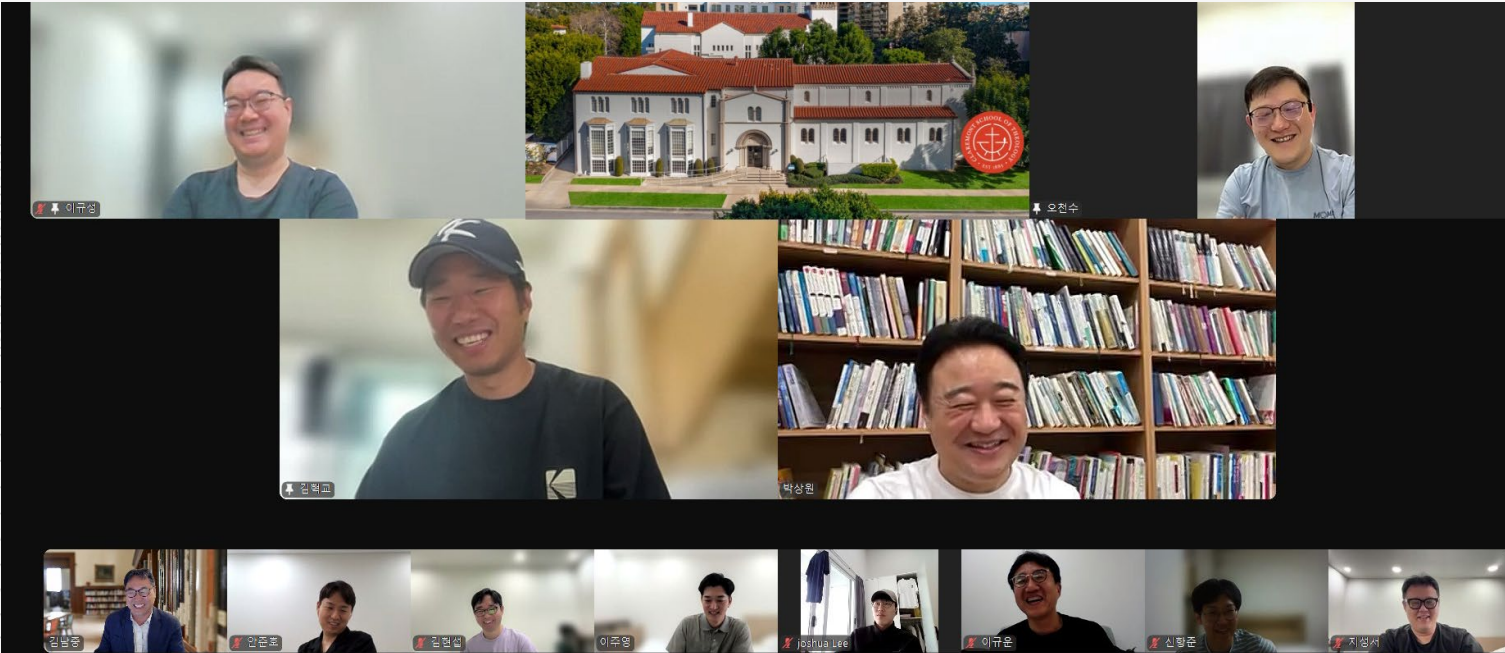
7월 14-18일

IDM 4034: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 강의: 김수정 교수 (CST 동문, 구약학 분야의 권위자)
- 내용: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갈등, 치유, 화해에 대한 성서적 토대를 탐구하며, 동시대의 해석학을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실천 프로젝트로 발전

교육학과 성서학을 바탕으로 한, 각 수업에는 22~23명의 실천신학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며, 실시간 Zoom 수업으로 운영한다. CST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은 매년 1월에는 한국에서 대면 집중 수업을, 7월에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부터는 학생들의 소속감을 더욱 높이고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Zoom 계정과 Populi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업에 접속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수업의 안전성과 효율을 강화하고 학생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갈등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목회자들은 더욱 깊은 치유, 회복, 변화에 대한 통찰과 실천적 지혜가 요구된다. 이번 여름 집중 수업이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나아가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오천수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오천수 목사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이신 김동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저는 이 귀한 학문의 여정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이신 김동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저는 이 귀한 학문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 동안 목회 현장은 늘 바쁘게 돌아갔고, 특히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늘 저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목회 현장과 깊이 연결되는 수준 높은 강의들은 매 순간 귀한 통찰을 선사해 주었고, 배운 이론은 목회 현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열정적인 가르침,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매 수업마다 던져 주셨던 질문들은 목회자로서 저의 삶과 목회 현장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예로, 김남중 교수님의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저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저의 논문 완성도를 높여 주신 김용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공감함 “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정의해 주신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다양한 목회 현장을 연민과 정의, 그리고 소속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가설 수 있게 해 주는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수업 과정은 갈등 상황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실천신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과 타자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저의 목회 현장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통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노년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회,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의존성과 환대를 실천하는 목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우정을 나누며 함께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에 대한 방향성과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학문의 여정 속에서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던 것은, 함께 공부하며 삶과 목회적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동료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연결됨’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D.Min. 과정 이상욱 목사)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에 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을 졸업한 이상욱 목사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20년이 지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여정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목회학박사 과정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후, 상당히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목회 현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주제는 “청년 청중의 참여자로서 상호의존적 설교 모델을 지향하며: 탈식민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질적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수업 과제로 시작했습니다.

〈사진: 이상욱 목사, D.Min. ‘25〉

심층 면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평범한 주제를 택했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고민하면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 작용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교자의 관점이 아니라, 청중의 눈에 비치는 설교자의 모습, 그리고 청중이 설교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설교를 청중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그들의 반응과 평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솔직하게 청년들에게 듣는 경험은 큰 가르침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정리, 청중과 소통하는 설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설교자로서의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프로젝트에서 제안했던 원칙을 지키면서 실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소통하는 설교, 함께 만들어 가고 은혜 받는 예배를 경험하는데, 그리고 경험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목회의 여정에 큰 화두를 던져주고, 방향을 찾게 해준 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과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남중 교수님, 김혜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김두영 담임목사님과 삼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도로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소중한 학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선교의 길을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해왔던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선교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선교 이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문하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젝트 제목이 “탈식민적 선교 이양을 향하여”입니다.

〈사진: 한선종 목사, D.Min. '2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만남은 저의 선교 여정을 새롭게 정리하며 마무리까지도 현장과 선교사, 후원교회까지 상호 의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교 이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지도력 이양, 부동산 이양, 현지 교단과의 관계, 후원교회와의 관계 등 하나같이 어려운 주제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주제들을 마무리하며 이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은 전혀 다른 출발점에 저를 서게 했습니다.

‘언제’라는 시기를 고민하던 제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어떻게’라는 숙명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도 피할 수 없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질문—‘어떻게 선교 이양이 가능한가’—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사고와 인식에 먼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는 이 공부의 여정은 제게 매우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넘어, 저의 선교적 비전과 목회적 방향을 성찰하고 정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한 동료 목회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나누며 배운 것은 큰 유익이었고, 그 자체로도 깊은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로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성숙한 목회자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공부의 길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신 김남중 부학장님과 프로젝트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김혜란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목회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D.Min. 과정 홍성찬 목사)



〈사진: 홍성찬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홍성찬 목사입니다. 저는 2009년, 그리고 2018년에 미국 여행을 하며 우연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히 “나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제2의 모교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사역하는 베다니교회의 지원과 배려로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전부터 저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목회가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목회자의 배움과 성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에 참여하며, 목회자의 배움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목회적 고민들이 정리가 되었고, 편협했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학문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며 갈등했던 문제를 고민하며, “한국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와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위해 많은 청년이 연구 참여자로 함께 해주었고, 현재는 이 논문으로 많은 청년, 청장년,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목회적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은, 저에게는 단순한 학업이나 자격 획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고 변혁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업의 모든 과정을 마쳤지만, 클레어몬트를 통해 배운 ‘예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목회의 현장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다른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남중 박사님과 오현선 박사님, 그리고 학업의 과정에서 좋은 벗이 되어준 모든 동료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베다니교회의 곽주환 목사님과, 학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베다니교회 동료 부목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배움과 실천, 그 균형 속에서 (최미선 교수)



〈사진: 최미선 교수, Ph.D. ‘22〉

그리고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생명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제 안에 오랜 시간 자리한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배움과 실천의 균형 속에서 저는 길을 모색해 왔고, 바로 이 질문들이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CST가 제공한 깊이 있고 변혁적인 다양한 교육 가운데, 저는 해방적이고 탈식민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역의 현장과 사회 속에 여전히 지배 이데올로기와 각종 ~ism이라는 이름의 의식적/구조적 불평등이 뿌리 깊게 스며 있으며, 저는 그 현실을 일상 속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식민 교육은 저로 하여금 현실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조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해석할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도 지배와 차별, 억압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천적 측면에서, 저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교단의 태평양 서남지방회에서 여성 사역부를 담당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침묵 당했거나 존재가 부정된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는 일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책무임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뿐 아니라, 저항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자취를 발견하며, 이들의 전인적인 회복과 인종/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 경험은 실천과 배움이 긴밀히 맞닿아야 한다는 저의 믿음-교육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ST에서 강의는 저에게 배움과 실천의 균형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 연구를 통해 쌓은 이론적 성찰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누고, 다시 학생들의 삶과 질문 속에서 신학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저에게 학자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깊은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일반 성도들을 교육하는 평신도 교육자나 사역자들의 신학적관점이 곧 교회에서 가르침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강의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학과 삶이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며, 서로 다른 시각과 삶을 통해 성장의 시간을 갖고, 해방과 환대를 향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모색하는 실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움과 실천의 균형 속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학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열리는 종교교육협회(REA)와 11월 AAR/SBL 학술대회에서 소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REA에서 지원하는 전 세계 신진 종교 교육학자 중 6명만 선발되는 펠로우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기독교 민족주의와 탈식민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 관련 도서 출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문 여러분과 소식을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의 기회들이 많은 이들의 기도와 지지 덕분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겸손히 배우며 배움과 실천의 균형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살아가시는 동문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의 새 힘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이경식 부총장
이현재 목사
문봉장학재단(김병학 회장)
월서연합감리교회
Mr. Kenneth Jo
Mr. Jong J. Lee
박정은 박사
신영각 목사
서태원 목사 기념 재단 (서동영 장로)

*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 기준): **\$501,758**

- KEF 잔액(1990.03. - 2025.5.) :	\$2,491,654
- KLS 잔액(2018.10. - 2025.5.) :	\$803,313
- General Fund (2024.03. - 2025.5.) :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2,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